

## 성서 속 숨겨진 목소리

구아름 (옴트다연구소)

### 성서를 읽는다?

해석이 어떤 것의 의미/내용을 판단하고 이해/설명하는 행동이라면, 성서를 읽는 것은 곧 특정한 독자/공동체의 눈으로 성서의 의미/내용을 판단하고 이해/설명하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눈(관점)’은 한 사람/공동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역사적, 문화적으로 축적되고 변형되어 존재하고 그 사람/공동체의 인식적/실재적 경험, 사회적 위치, 정체성 형성의 과정 등을 통해서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형성된다. 사람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교차하며, 그 역동성 안에서 사람은 해석한 대로 보고 해석으로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적 해석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주변의 존재들과 관계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공동체적 정체성(identity)을 지속적으로 발견해가고 형성해가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 ‘여성주의’ ‘해석’

우리가 ‘여성주의 해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여성주의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한 구별된 담론을 상상하기 이전에 무엇이 ‘무엇이 ‘여성주의’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대답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답이 단일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 안에 있는 존재적 정체성의 다양성과 한 사람의 삶 안에 수많은 해석적 관점들이 축적되어 있고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양한 여성주의 운동이 생겨나는 이유 역시 그렇다. 어떤 특정 여성주의를 정의하거나 고정화 시킬 때 그 정의와 주요 경험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목소리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백인 여성주의자들이 흑인의 여성들의 삶과 교차적인 (intersectional) 억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겼을 때, 흑인 여성들은 그녀들의 여성주의 ‘Womanist’의 소리를 내었던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여성주의 해석은 다양한 범위(spectrum)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여성주의 해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특별히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성주의 해석은 정의의 문제가 중심에 있다. 독자는 여성이나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난독화 혹은 억압을 초래한 성서 텍스트에서 여성 혐오를 인식합니다. 여성의 창의성, 스타일, 상상력의 독특한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인해

소홀한 여성의 이미지와 은유를 보다 충분히 탐구하고 숨겨져 있거나 침묵 되어 온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여성 해석의 관점은 여성의 범주에서 보다 넓은 소외 받는 목소리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목소리, 특별히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떤 목소리가 성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며 특별히 가부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성서와 여성에 대한 수많은 좋지 않은 이미지들 그리고 하나님의 남성적 이미지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한 다양하게 측면의 시각들을 성서 읽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 주의 기울이는 것이다.

### 여성주의 해석 그리고 인식적 부정의 (Epistemic Justice)

성서를 읽은 관점으로 여성 혹은 소외된 이들의 시각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적 불의가 성서 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미란다 프리커(Miranda Fricker)에 따르면, 인식적 불의는 "지식, 이해, 및 의사소통에의 참여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의 형태"를 의미한다.<sup>1</sup> 인식적 부정의의 피해는 특정 지적 전통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고 불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sup>2</sup> 지배와 억압으로 이상적(ideal) 계급과 하층(lower) 계급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여성주의 해석은 주변부의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경험을 들음으로써) 지식, 이해, 의사소통 관행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불공정한 대우를 인식하고 저항하며 비판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눈을 배양하는데 기여한다.

- 1) 의견의 불일치를 그룹의 진정한 대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타자를 환영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 없는 불일치를 존중한다. 다른 관점을 초대하고, 특정 해석학적 위치의 취약성을 탐구할 때 묵살하거나 수치스러운 방식을 피한다.
- 2) 억압적인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해체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전복적인 자원으로써 성경 텍스트의 모호성을 탐구한다.<sup>3</sup>

### 어떻게 읽어야 할까?

---

<sup>1</sup> Ian James Kidd, José Medina, and Gaile Pohlhaus, Jr. "Introduction to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eds. Ian James Kidd, José Medina, and Gaile Pohlhaus, Jr. (New York: Routledge, 2017), 1.

<sup>2</sup> Ibid.

<sup>3</sup> Carolyn J. Sharp, "Is This Naomi? A Feminist Reading of the Ambiguity of Naomi in the Book of Ruth," in *Feminist Frameworks and The Bible*, 151.

1. 의식화: 권력의 역학(Power Dynamic),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 비판적 주변부(Critical Marginalization)를 인식하고 읽기.
2. 지배적 담론과 해석에 대한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 of Domination): 성서 본문을 지배적으로 이끌어온 담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읽기. 이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들음의 윤리 (Ethics of Listening)가 필요하다.
3. 의심: 텍스트 기록의 방식들과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함으로써 성서 안에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것들을 폭로하고 현실 세계 속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건과 기억: 종교적 가부장제의 희생자들이 자기 이해와 종교적 비전을 그릇된 이념적 자기 기만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절망 모두에 대한 참여와 연대 안에서 여성들의 고통과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다. 여성의 기억, 삶, 경험, 관점 등에서 역사적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여성의 이야기를 기독교 역사 및 예전적 실행으로 복원하는 재건과 기억의 해석 방식은 신성한 계시, 고통의 신학적 정당화, 가부장적 억압, 망각, 그리고 침묵에 저항한다.
5. 재창조: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던 해석적 전통들과 성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나/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통해서 성서를 재구상 해보는 것.
6. 변화 및 변화를 위한 행동: 하나님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르는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성경과 오늘의 세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 야엘의 이야기(삿 4:17-24)

여성주의 해석은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을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려는 유혹에 맞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미늘”로 작용할 수 있다.<sup>4</sup> 다양한 억압의 근원으로 고통받는 이야기는 커뮤니티를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sup>4</sup> Erich Zenger, *A God of Vengeance? Understanding the Psalms of Divine Wrath*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6), 75.